

정보·과학

MS, 내달부터 윈도우98 보안서비스 중단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7월 1일부터 윈도우98 운영체제(OS)의 보안 패치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200만 대에 달하는 윈도우98 기반 컴퓨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서만 200만대 사용 해킹·바이러스 등 무방비

국내 윈도우 98 사용자는 얼마나 돼나=윈도98 기반 PC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학교나 경찰서 등 관공서. 이런 기관들은 당장 컴퓨터를 새로 사야할 때가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컴퓨터는 OS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다.

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PC 보급대수는 2천700만대. 이 중 윈도98 기종은 전체의 7.4%인 200만여 대지만 관공서 등은 다른 사용 자층보다 윈도 98을 쓰는 곳이 여전히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PC는 많은 수의 기기가 사내 네트워크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해킹을 당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개인 사용자들도 100% 안전하지는 않다. MS는 OS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시종 백신 업체는 윈도 98의 보안상 허점을 고치는 패치를 만들 수 없다.

때문에 만일의 하나 윈도98의 보안망을 뚫는 신종 웜이 퍼지면 사용자는 감염이 될 때마다 백신으로 이을 매번 제거하는 '임시방편'만 쓸 수 있을 뿐. 패치로 웜의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근본 치료'는 포기해야 한다.

▷보안 구멍 막을 수는 없나=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자기 PC에 OS

Microsoft Windows 98
'윈도98' 지원서비스 중단 현황
- 중단 일자: 2006년 7월 1일 0시
- 중단 제품: 윈도98(Windows98), 윈도98 SE(Second Edition), 윈도 ME(Millennium Edition)

를 깔아 쓰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백신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악성코드만 잘 막으면 보안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www.ncsc.go.kr)도 지난주 윈도98 사용자들에 자동 보안 점검 프로그램(Win98 PC Checker)을 개발, 무상 배포하기 시작했다.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 백신 업체들도 MS측의 패치 중단 조치와 무관하게 윈도89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광주 지상파DMB '아직은 시험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한국과 스위스의 조별 예선이 치러진 지난 24일 전남대 후문과 광주월드컵 경기장 곳곳에서는 조그만 액정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KBS 시험서비스...채널 2개뿐·광주 인근만 수신 지상파·위성 동시 수신 '듀얼 단말기' 공급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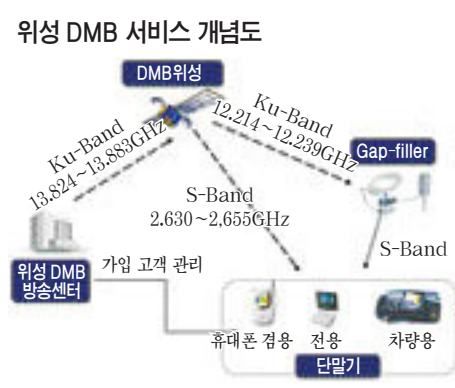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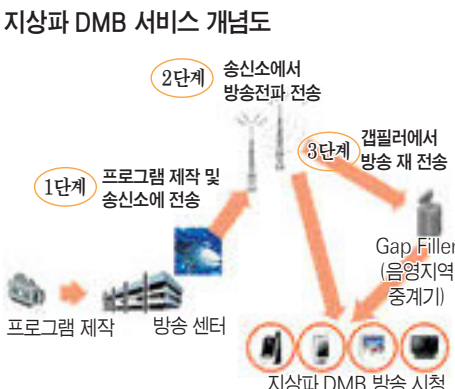
◇지상파 DMB, 광주도 공파=지상파 DMB는 지난해 말 분방송에 들어간 방송 서비스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수신이 가능했지만 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월드컵 기간동안 시범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고 KBS의 실용화 시험공을 승인했다.

광주를 비롯, 제주·춘천·부산 등에서도 지상파 DMB방송 수신이 가능하게 된 것. 수신기만 있으면 누구나 공짜로 즐길 수 있는데다 월드컵 열기, 전국 서비스 확대 등으로 최근 지상파DMB 단말기 보급대수도 1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KBS는 2개의 비디오 채널 가운데 하나는 2TV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KBC 광주 방송, EBS, YTN 등 다른 방송사의 콘텐츠로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무등산 중계소에서 신호를 내보내기 때문에 광주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수신이 가능하다. 휴대폰이 터지는 지역이라도 지상파 DMB 시청은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이다.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 김혁 정책실장은 "현재는 제주 공방에서도 전파가 잡히는 등 쓸데 없이 멀리 가 조정 중에 있다"면서 "목표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등산 중계소의 FM 수신 지역인 광주·나주·함평·영암·장성·목포 등까지 지상파 DMB도 수신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특유는 실용화 시험공 허가 기간은 8월 31일까지지만 단말기를 가진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정보통신부가 시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열차 안에서 위성 방송을 시청하는 서비스다. 유료 영화채널·연예·오락 채널 등 비디오 채널 12개, 오디오 채널 26개 등으로 다양하고 지상파 DMB와 달리 전국 전역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풍부한 콘텐츠에 비해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지상파 재전송이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을 위성DMB에서 실시간(또는 녹화)으로 방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방송사들이 경쟁사인 위성DMB(휴대방송) 사업자인 TU미디어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도, 위성도 가능한 DMB 단말기는 왜 없나= 휴대전화만 놓고 보더라도 KTF의 경우 지상파와 위성 DMB폰이 각각 7종씩이며, SKT는 지상파 1종(SCH-B410), 위성 15종에 이른다.

SKT가 지상파 DMB 모델이 적은 이유는 계열사인 TU미디어가 위성DMB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감안, 지상파 DMB폰판매를 미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상파 DMB 단말기 보급대수 100만대를 넘어선다고, 위성 DMB 가입 고객도 62만명에 이르지만 듀얼 단말기는 한 대도 없다는데 있다.

예컨대 TV에서는 케이블과 지상파를 골라 볼 수 있는데, DMB는 그렇지 않다는 것. 휴대전화를 고를 때에도 위성 DMB를 살지, 지상파 DMB 기능을 전화로 구입할 지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한때 삼성이 최초 듀얼 폰을 출시하려고 했으나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가 얽히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축구에 숨겨진 과학

골키퍼의 반사적 움직임

2002 한일월드컵대회 골 분포(%)



공 잡지후 잡는데 0.6초 이론상PK는100% 성공

골키퍼가 공을 잡는데는 얼마나 걸릴까. 골키퍼가 공의 방향을 감지하고 몸을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0.6초. 반응을 한 뒤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을 더해 나온 시간이다.

골대로부터 정면 11m 지점에 놓고 차는 페널티킥의 경우 키커가 찬 공이 골라인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0.4초 정도. 실제와 차이는 있지만 수학 이론상 로만 보면 성공률은 100%나 다름없다.

골키퍼도 통상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만 방어한다. 키커가 늘어날수록 공을 차는 키커부터 골대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 페널티 아크(골대부터 16.5m)에서 시속 120km의 속도로 공을 차면 0.6초가 걸린다.

키커가 멀수록 골키퍼가 공을 보고 움직이는 시간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결국 페널티 아크 밖에서 쏘는 슛은 그만큼 들어가 힘들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골문 앞 중앙에서 날린 슛의 90%는 대부분 골문 정면 중앙에서 터졌다.

반면 이번 월드컵 한국과 토고전에서 안정한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린 지역에서 터진 골은 한 골이 전부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중·장거리 슛을 쏘면서 무회전 슛으로 쏜다거나 크게 휘어지는 코너킥을 구사, 골키퍼가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으로 찔러 넣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비가 새서 걱정하십니까? 여름에 더워서 자증 났습니까? 겨울에 춥습니까? 외관에 흠이 있습니까? 소음이 심하십니까?

이 책속에 귀하의 평생 건강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불임, 갱년기 장애를 자연치유하는 약용식물 마카
정력부족은 만병의 시작이다. 정력에 관한 올바른 상식. 키도 크고 체력도 키우는 마카. 마카 덕분에 발기부전과 조루도 고쳤다.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지산컨설팅의 장기·분할 전문·자산관리·자산분석
광주·전남권 토지구합
Tel : 062)973-9174, 016-757-8800
첨단·수완·신창
상업용지 택지 상가건물 중개전문

존경하는 동료·선배 중개사님들께
또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아시듯이 중개사들간의 협력은 성공의 필수요소이고 우리의 성공은 모두 귀하같은 중개사님들 덕분입니다.

호남랜드공인중개사
☎ 373-3939, 011-616-8698
(영주동 서광주우체국앞)
전속중개계약 취급업소입니다.
공장급 매매
소재지: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7-19의1번 능주중공단지내

중앙국토개발컨설팅
(☎) 011-647-3500
(광주지방법원 뒷편)
상가, 점포
부구 우산동 우미프라자 1층 상가 222평 매매가 47,000,000원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 522-9422, 011-643-3210
(동림2지구 및 하남로 대로변)
동림2지구 대
임·병·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속 입점확정
1층 평주은행

대지공인중개사
(☎) 011-625-3965
구합니다
사회복지시설부지: 20평 이상(가 작은 시세대로)
금매물 부동산 구합니다.(신속처리)
입니다.
입자 11,000평, 담양 향평
농림지역, 원림평지, 전면 80m 포
장도로로 매개가 평당 19,000원
금남로 공시지가 15억
매개가 8억 대지 140평
중흥동 35m 대로변
문주가지역
코너 대지 180평 매매가 평당 310만원
대지 280평 건물 300평 전면 22
m 대로로 매개가 10억 5천만원
소인문 상업지역 대지 102평
2층건물 있음, 생산농지, 매개
가 평당 130만원
본흥동 4차선 대로변 900평
2층건물 있음, 생산농지, 매개
가 평당 130만원
신라동 31사방 정면완 4차
선도로변
대지 86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도현동 생산농지 포장도로로
907평 매평당 78만원
화동 대지 120평
여권건물 150평 포함 매평당
330만원